

LoL·스타2 인기 힘입은 한국e스포츠 '제2의 르네상스'



한국e스포츠가 새 인기 종목 발굴과 체계적 글로벌 리그 체제 도입 등을 통해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지난 9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월드 챔피언십 시리즈(WCS)시즌1 파이널' 결승전 전경. 사진제공 |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다시 뛰는 'e스포츠 심장'...10만 관중 재현할까?

LoL 챔피언스 결승전 전파적 유료 불구
1만 여 관중 몰리며 전석 매진 돌풍
스타2 확장팩 출시 후 WCS 대항행
넥슨 '도타2' 출시 맞춰 리그 준비중

한국e스포츠가 새로운 중흥기를 맞았다. 한국e스포츠는 1990년대 후반 PC방을 기반으로 자생적으로 생겨난 뒤, 2000년대 초반 '기업팀 창단 러시'와 '광안리 10만 팬 운집' 등 최고 인기를 구가했다. 임요환 등 일부 프로 선수들은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부터 '신규 종목의 부재'와 '이해 당사자들의 반목'으로 위기를 맞았고, 팬들도 등을 돌렸다. 최근 이렇듯 침체됐던 e스포츠에 큰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새 e스포츠 인기 종목의 부상과 체계적 글로벌 리그 체제 도입 등이

잇따르면서 팬들이 e스포츠 경기장으로 돌아오고 있다.

●'LoL' 새 인기 종목의 급부상

지난 15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는 1만 여명의 군중이 몰렸다. 인기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이하 LoL)의 경기를 보기 위해 모여든 e스포츠 팬들이었다. 특히 이들은 모두 돈을 지불하고 경기를 관람한 유료 관중이었다. 이처럼 'LoL'은 최근 가장 '핫'한 e스포츠 종목이다. 이 게임은 40%에 육박하는 PC방 점유율 등 게임의 인기를 바탕으로 e스포츠 종목으로 연착륙을 했다. 관련 대회가 열릴 때마다 인터넷 포털에는 '블드컵'이나 '롤 클라시코' 등 관련 키워드가 인기 검색어 상위권을 휩쓸었다. 현장 관중 동원력도 컸다. 15일 열린 정규 리그 '울림투스 LoL 챔피언스 스프링 2013' 결승전은 한국 e스포츠 역사상 최초로 전 좌

석 지정 유료제를 시행해 관심을 모았다. 팬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유료로 판매된 9797석은 전석 매진됐다.

●'스타2:군심' 10만 팬 신화 다시 쓴다

국내 대표 e스포츠 종목인 '스타크래프트'도 화려한 부활을 알렸다. '스타크래프트'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한국 e스포츠의 시작과 전성기를 함께 한 게임이다. 하지만 2010년 출시된 '스타크래프트2:자유의 날개'는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 대표 e스포츠 종목으로서 '스타크래프트'의 부활은 올해 초 출시된 확장팩 '군단의 심장'에서 시작했다. 확장팩 출시를 기점으로 기존 리그는 흥행에 속도를 더했고, 새로운 리그도 출범했다. 국내 최대 팀리그인 프로리그는 '군단의 심장'으로 종목을 바꿔 진행하면서 인기가 부쩍 늘었고, 고사 위기에 있던 개인리그도 '월드 챔피언십 시리즈'(WCS)라

는 이름으로 부활했다. 특히 WCS는 한국과 북미, 유럽 등 전 세계 선수들이 자웅을 겨루는 글로벌 통합 리그로 보는 재미를 더하고 있다. 지난 9일 치러진 '시즌1 파이널' 결승에는 수천 명의 팬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WCS 코리아는 18일 두 번째 시즌을 시작했다.

●'도타2' 새 e스포츠 종목으로 기대

이 밖에도 다양한 게임들이 차세대 인기 e스포츠 종목을 노리고 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넥슨이 'LoL' 대항마로 올 하반기 국내 서비스를 준비 중인 '도타2'다. 넥슨은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아마추어와 프로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리그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에만 국내 대회에 총 20억원의 상금을 쏟아붓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김경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더스틴 벡 라이엇게임즈 부사장

한국팬 e스포츠 열정 서프라이즈~



"e스포츠 성지인 한국팬들의 열정은 매우 놀랍다."

18일 서울 압구정동 라 까사 호텔에서 만난 더스틴 벡 라이엇게임즈 e스포츠 및 스페셜 프로젝트 부사장은 이같이 말했다. 최근 열린 'LoL 챔피언스 스프링 2013' 결승을 참관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그에게서 국내 최고 인기 e스포츠 종목으로 자리매김한 'LoL'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들어봤다.

- 한국에서 열리는 경기를 본 소감은.

"한국e스포츠를 보면 한 명의 팬으로서 압도당한다. 한국 팬들의 열정은 정말 놀랍다. 그 열기는 '슈퍼볼' 등 다른 스포츠 박이벤트와 다를 바 없이 뜨겁다. 시설 등 제반여건도 높은 수준이다."

- 지난해 첫 글로벌 대회를 개최한 지 1년이 지났다.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한다면.

"라이엇게임즈는 'LoL' 리그를 야구나 풋볼과 동일하게 보고 있다. 물론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지만 큰 성장을 했다고 본다. 앞으로 더 노력할 것이다."

- e스포츠 종목으로서 'LoL'이 가진 경쟁력은.

"게임 콘텐츠에 투자하는 만큼 e스포츠에도 투자한다는 것이다. 콘텐츠를 개발할 때 e스포츠를 염두에 둔다는 것도 차별점이다."

- 올해 만만치 않은 경쟁자들이 나올 텐데.

"'LoL'이 출시된 뒤 이미 놀라운 경쟁자들이 등장했고, 앞으로도 쟁쟁한 게임들이 나올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유저들이 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콘텐츠 업데이트와 e스포츠 활성화에 힘을 쓸 것이다."

- 향후 e스포츠 투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최근 중국에서 울스타 대회를 개최한 것처럼 국제 대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언젠가 한국에서도 글로벌 e스포츠 이벤트를 열 계획이다." 김경민 기자

홍삼 '원기회복 효과'...스포츠 스타들도 반했다

FOOD & BEVERAGE

여름철 대표 보양식 홍삼 인기 쟁

사포닌 다량 함유 '원기회복' 도움
간편한 섭취·도핑테스트에도 안전

KGC 농구·배구단 2012시즌 우승
정관장 고평탄 양수진 등도 맹활약
소속팀 선수들 성적으로 효능 증명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보양식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가장 간편하게 먹을 수 있으면서 효과가 확실한 보양식은 무엇일까?

시즌 중반에 접어들면서 더욱 흥미로워지고 있는 프로야구 중계를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다. 프로야구 선수들이 경기 전이나 경기 중에 홍삼을 먹는 장면이 카메라에 자주 잡히기 때문이다. 홍삼은 거의 매일 경기에 출전해야 하는 프로야구 선수들은 물론이고 항상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하는 프로 스포츠 선수들이 가장 선호하는 보양식으로 알려져 있다.

●프로 스포츠 선수들에게 홍삼이 인기 있는 이유는?

프로 스포츠 선수들 사이에서 홍삼이 보양식으로 인기를 끄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원기회복에 효과가 좋은 사포닌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고, 둘째 다양하고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으며, 셋째 도핑테스트에 안전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홍삼에 다량 함유돼 있는 사포닌 및 산성 다당체 성분은 영양분 흡수와 소화를 돕고 신진대

사를 촉진시켜 에너지 증강과 원기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식약청으로부터 면역력 증진, 피로회복, 기억력 개선, 혈액 개선 등에 대한 효능도 인정받았다.

특히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 기간에는 올림픽 선수단에 홍삼이 공급되어 우리 선수들의 체력관리에도 큰 도움이 됐고 장미란, 박태환 선수 등도 꾸준히 홍삼으로 체력관리를 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홍삼의 힘! 인삼공사 소속 선수들 맹활약

국내 홍삼시장의 1위 기업은 정관장 제품을 생산하는 'KGC인삼공사'다. 그렇다면 홍삼 제품을 가장 많이 섭취하고 있는 KGC인삼공사 소속 스포츠 선수들의 성적은 어떻게?

지난해 성적을 살펴보면 2013년 3월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투어에서 정관장 프로골프단 이보미 선수가 우승한 것을 신호탄으로 맹활약이 이어졌다. 4월에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메이저 대회인 크라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에서 우유선영(27)이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쾌거를 이뤘다.

아울러 남자프로농구단과 여자프로배구단까지 2012시즌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KGC인삼공사는 소속 스포츠단 전 종목에서 우승하는 그랜드슬램을 이뤄냈다.

올해 역시 정관장 고평탄 소속의 양수진(22) 선수가 2013 KPGA 벡센-세인트나인마스터즈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홍삼의 힘'을 유감없이 발휘해 나가는 중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 @serenowon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하는 프로 스포츠 선수들은 가장 선호하는 보양식품으로 홍삼을 꼽았다. 인삼공사에서 출시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홍삼 제품. 사진제공 | 인삼공사



CJ그룹, 아르바이트 전원 '정규직급' 혜택 제공

알바 1만5천명 '양질 시간제 일자리' 전환
4대보험·퇴직금 등 정규직에 준하는 혜택
경력개발 위한 상시 트레이닝 제도도 도입

CJ그룹이 아르바이트 직원에게도 정규직에 준하는 혜택을 준다.

CJ그룹(회장 이재현·사진)은 계열사 아르바이트 직원 1만5000여 명을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정부가 '고용률 70% 로드맵'을 내놓고 시간제 일자리 정책 강화를 밝히며 대한 대기업 차원의 첫 공식 발표다.

이에 따라 CJ그룹의 서비스 전문 계열사 CJ푸드빌과 CJ CGV, CJ올리브영에 소속된 1만 5271명의 직영 아르바이트 직원들은 전원 계약 기간 제한 없이, 희망하는 시점까지 선택해 근무할 수 있다.

또 4대보험과 연차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등 정규직원에 준하는 처우와 함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기존 우수사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던 장학금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재직기간 동안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그 밖에도 서비스 전문 교육, 해외 연수 등 성장지원 정책과 함께 회사별로 차별화된 복리후생 정책으로 '반듯하고 비전이 있는'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CJ그룹은 특히 청년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계속 꿈을 키울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책에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해 우수 아르바이트 직원 200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6개월 이상 근무한 대학생 아르바이트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근무 기간 동안 학자금 대출 이자를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경력개발을 위한 상시 트레이닝 제도도 도입



했다. 서비스업에 대한 이해와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서비스 전문가 인증과정을 도입하고, 우수 아르바이트 직원들을 선발해 2주간 CJ 해외 매장 체험과 현지국가를 경험하는 글로벌 연수 제도도 함께 운영한다.

경조급 지급과 명절 선물 등 복리후생도 강화된다. 특히 각 사별 맞춤형 혜택도 있다. CJ푸드빌은 해당 외식브랜드에서 식사 시 35% 할인 혜택을 주며, CJ CGV는 월 10회 한도 CGV 영화 무료관람과 매점 50~70% 할인혜택을 준다. CJ올리브영은 3개월 연속시마다 CJ 상품권을 지급하고 일부 외국인고객이 많은 매장의 경우 매월 어학수당을 제공한다.

그를 관계자는 "아르바이트 직원들을 단기간 근로 시급직원이 아닌 '청년 인턴십'의 개념으로 발전시켜 회사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인재로 육성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한편 CJ그룹은 이에 앞서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에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여성 리턴십'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재계 고용 확산을 주도하고 있다.

김경민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트위터 @bong821